

조선전기 부산지역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이 정 수

(동서대학교 교수)

目 次

- I. 머리말
- II. 조선전기 부산의 행정과 관방
- III. 조선전기 부산의 사회와 경제
- IV. 조선전기 부산의 대일관계
- V. 임진왜란·정유재란과 부산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사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지역민의 일원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학문풍토가 중앙을 중심으로 연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중앙과 지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중앙이 중심이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지역은 중앙의 개별 요소로서, 지역발전이 없이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지역의 역사적 과정과 진로는 한국사 일반의 전개과정이나 진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¹⁾

근래 지역학 특히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역문제를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해결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로 한국사 전체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과 정착, 국가 간의 교섭이 점차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역의 발전은 곧바로 국가발전과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부산지역에 대한 연구도 1990년대 이후 점

1) 윤흥출 외, 1994 「전근대 부산·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회보』 창간호,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소, 2003. 『부산학 총서 1 - 부산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신라대 출판부

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 부산지역사 연구가 부산시청을 비롯한 지자체의 적극 지원과 연구자와 일반인들의 관심 속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연구 시기와 관심 대상이 특정 시기,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자료적 한계와 연구자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표> 부산지역사 시대별 연구 현황²⁾

시대별 시기별	총류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계
1960 ~1969	1 (7)	3	1			6	13 (5)	24 (12)
1970 ~1979	4 (6)	5 (6)	2	1	1	3	24 (2)	40 (14)
1980 ~1989	10 (13)	27 (10)	4	4	2	10	13 (3)	70 (26)
1990 ~1999	21 (54)	18 (11)	8 (1)	1		16 (6)	54 (5)	118 (77)
계	36 (80)	53 (27)	15 (1)	6	3	35 (6)	104 (15)	252 (129)
총계	116	80	16	6	3	41	119	381

* ()은 단행본 수입.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사 연구는 점차 양적 증가뿐 아니라 그 연구 대상과 시기도 확대일로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사시대와 근대사 분야의 연구 증가가 두드

2) 洪淵津, 1991, 「釜山史 研究現況」, 『항도부산』 10, 239쪽, <표 4>; 강대민, 2003, 「釜山學 研究現況과 課題 -부산 역사를 중심으로-」, 『부산학총서 1』,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61쪽, <표 5> 재인용.

러진다. 하지만 다른 시기와 달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조선전기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사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도 조선전기사의 연구가 취약한 측면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것은 부산사 연구자료가 고대~조선전기까지는 거의 발굴되지 못하고 선사시대에 관한 발굴과 조선후기 이후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굴되고 있는 것에 연유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부산사 연구자의 관심 또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³⁾

이처럼 조선전기의 부산지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며, 최근에 와서도 새로운 연구가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다.⁴⁾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선전기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존의 연구사 형태를 취해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연구사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연구 현황에 대해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3) 강대민, 「앞의 글」, 62쪽.

4) 최근에 이종봉 교수와 김강식 교수에 의해 조선전기 부산의 사회와 경제, 행정과 관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도 자료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종봉, 「朝鮮前期 釜山地域의 社會와 經濟」, 『항도부산』 21, 2005; 김강식, 「朝鮮前期 釜山地域의 地方行政과 關防」, 『항도부산』 21, 2005)

II. 조선전기 부산의 행정과 관방

1. 부산의 연혁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釜山이라는 지명은 釜山浦에서 유래된 것으로, 조선초기에 들어와서 사용되었다. 『東國輿地勝覽』(1481년)에 의하면, “원래 동평현에 ‘釜山’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가마[釜]와 같아서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현재 이 산은 동구 좌천동에 있는 甌山이다. 그 산 아래에는 과거 고려시대에 富山部曲이라는 포구가 있었다. 지명으로서의 부산은 『世宗實錄地理志』(1432년)와 『海東諸國記』(1471년)에 나오는데 이때는 ‘富山浦’라 하다가 15세기 후반부터 ‘釜山浦’라 부르게 되었다. 즉 부산이라는 산 아래가 바로 부산포였던 것이다.⁵⁾

조선시대의 부산포는 독립된 지방 행정단위인 군·현이 되지 못하고 東萊縣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종5품의 관리가 상주하였던 곳이다. 1397년(태조 6)에 동래가 일본과 대치하는 국방의 요지로 인정되어 釜山鎭이 설치되자 동래는 행정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거점으로서 부각되었다. 그러다가 三浦倭亂(1510년) 이후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동래현은 1547년(명종 2) 東萊都護府로 승격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의 방어책임으로 동래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599년(선조 32) 재차 대일외교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으로 인

5) 강대민, 1997; 『부산역사의 산책』, 한국학연구소, 경성대 출판부

이원균, 2000; 『부산의 역사』, 늘함께, 崔海君, 1997;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 1·2·3, 지평, 金錫禧, 1974; 「조선전기의 부산」, 『釜山市誌』 上, 김석희·지두환, 「조선전기의 부산」, 『釜山市史』 제1권,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4.

해 동래부로 다시 승격되어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후 1903년(광무 7)에는 동래부를 동래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두었다.⁶⁾

2. 부산의 행정체계

조선초기 당시 동래는 尙州監營觀察使의 통제를 받았다. 그 후 16세기에 들어와 1519년(중종 14)의 지방제도 개편에서 경상도가 좌·우로 나누어짐에 따라 동래는 좌도에 속하게 되었다. 경상좌도의 감영이 경주-달성-안동으로 바뀌었다가 宣祖代 이후 大邱로 고정됨에 따라 대구감영관찰사의 행정체제 아래 있게 된다.

동래의 행정기구 편제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東萊縣 시기에는 縣令(종5품), 訓導(종9품) 그리고 특수직인 驛丞(종9품)의 관원이 있었으며, 부산포에는 倭學訓導(종9품) 1명이 있었다. 都護府 시기에는 행정기구가 확장되어 都護府使(종3품)와 그 보좌관인 判官(종5품)이 있었다.⁷⁾ 당시 지방 관청의 실무는 6房에 소속된 향리에 의해 관장되었으며, 이들이 집무하는 곳을 吏廳이라 불렀다. 이외에 지방 양반들로써 구성된 鄉廳이 있었는데, 이는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고을의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함으로써 수령의 직무를 보좌하

6) 강대민, 『앞의 책』, 1997; 이원균, 『앞의 책』, 2000; 金玉根, 1989; 「朝鮮前期의 釜山經濟」, 『釜山經濟史』, 부산상공회의소, 김석희·지두환, 1994; 「앞의 글」, 1995. 정재훈, 「조선전기의 동래」, 『동래구지』 上, 동래구지편찬위원회

7) 『東萊府使先生案』에 의하면 1506년(연산군 12) 8월에 현령 金弘壽가 부임한 후 1895년(고종 32) 5월 부사 鄭寅學이 이임할 때까지 389년 사이에 현령 27명, 부사 255명하여 도합 282명이 교체되었다.(이원균, 앞의 책, 2000, 86쪽)

는 자문기구였다. 그 임원을 鄉任이라 했으며, 府에는 4~5인, 縣에는 2인을 두는 것이 통례였다.⁸⁾

동래부의 행정구역은, 조선전기의 경우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상고할 수 없지만 몇 개의 面과 그 하부 조직으로서 里나 洞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후기의 경우는 『東萊府誌』(1740년) 등에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의하면 동래부는 邑內面, 東面, 南村面, 東平面, 沙川面, 西面, 北面의 7면 22동 79리로 나뉘어져 있다. 읍내면은 오늘날의 동래 지역이며, 서면은 현재의 서면이고, 동면은 오늘날의 해운대 지역이다. 그리고 남촌면은 현재의 남구 지역에 해당하며, 동평면은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 사천면은 사상구, 북구와 서구, 사하구 및 중구 일대, 북면은 금정구 일대로 알려져 있다.⁹⁾

3. 부산의 군사체계

조선의 군사제도는 건국 초부터 1397년(태조 6), 1423년(세종 5), 1455년(세조 원년) 등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에 와서 전국을 鎭管으로 편성하고 모든 수령이 군직을 겸임하는 소위 鎭管體制로 개편됨으로써 일단의 완성을 보았다. 이것은 각 道에는 병마절도사[兵使]가 파견되어 각기 그 道內의 육군을 지휘 통솔하고 병마절도사영[兵營]의 소재지를 主鎭으로 했으며, 그 관하에 몇 개의 巨鎭을 설치하여 절제사, 첨절제사가 이를 지휘 통솔하며, 이

8) 이수건, 1994 『韓國史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23, 국사편찬위원회

9) 강대민, 1997; 『앞의 책』, 이원균, 2000; 『앞의 책』,金玉根, 1989 「朝鮮前期의 釜山經濟」, 『釜山經濟史』, 부산상공회의소, 김석희·지두환, 1994 「앞의 글」, 정재훈, 1995 「조선전기의 동래」, 『동래구지』 上, 동래구지편찬위원회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관 밑에 다수의 諸鎭을 두어 同僉節制使·萬戶·節制都尉가 이를 지휘 통솔하게 하는 것이다.¹⁰⁾ 그 중에서도 한 道の 육군을 총지휘하는 병사는 1원에서 3원에 이르렀는데, 경상도에는 3원을 두어 그 중에 1원은 관찰사가 겸임하고, 그 나머지 2원은 道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각각 무관 전임의 병사를 두었다.

조선초기 동래현은 울산에 있었던 경상좌병영 관하의 경주 진관에 속하는 제진의 하나로서 동래현령이 절제도위의 군직을 겸하고 있었다. 그 후 1547년(명종 2)에 동래현이 도호부로 승격하자 동래부사가 동첨제사의 군직을 가지고 육군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 휘하에 3旅(370명)의 留防軍이 있었다. 하지만 부산지방은 임진 난을 겪으면서 국방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1655년(효종 6)에 와서 단독의 獨鎭이 되어 양산과 기장의 군사까지 포함하여 약 7천여 명을 지휘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水軍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 오히려 육군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수군도 육군과 같이 1394년(태조 3), 1420년(세종 2) 등 여러 번의 개편을 거쳐 진관체제가 완비되면서 그 체제가 갖추어졌다. 수군절도사가 있는 수군절도사영[水營]의 소재지를 主鎭이라 하고, 그 밑에 거진을 두어 절제사, 첨절제사가 각각 지휘하게 하며, 이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관에 여러 개의 제진을 두어 동첨절제사, 만호, 절제도위가 이를 지휘하게 하였다.

경상좌도에는 울산 開雲浦에 좌도 수군절도사영[左水營]이 있었으며, 그 관하에 부산진 진관이 설치되고 그 밑에 두모

10) 육군본부, 1968;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한국연구원

포·해운포·염포·감포·포이포·칠포·오포·축산포·다대포·서생포 등 10개의 만호영이 있었다. 이 중에서 동래현 관내에는 부산포진과 해운포영·다대포영이 있었다. 특히 부산포진은 좌도에 있었던 유일한 수군의 거진이었다.

그 후 임진왜란 직전에 해운포영이 없어진 반면 다대포영이 첨사영으로 승격되고,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경상좌수영의 수군본부가 동래 남촌면(현재 수영지역)으로 옮겨졌다. 여기에는 무관 정3품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좌수사]와 그 부관으로 무관 정4품의 虞侯가 지휘하였다. 좌수영 관내에는 부산첨사영과 다대첨사영의 2개 첨사영과 서평포만호영, 두모포만호영, 개운포만호영, 포이포만호영, 감포만호영, 축산포만호영, 칠포만호영 등 8개의 만호영이 있었다.¹¹⁾

4. 부산의 교통·통신체계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교통·통신수단으로는 驛과 院 그리고 烽燧 등을 들 수 있다.

驛은 전국의 중요도로에 30리를 단위로 하나씩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5~6개에서 수십 개의 역을 한데 묶어 하나의 道 단위로 삼아 察訪(종6품)이 이를 관장하였다. 1469년(예종 원년)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志』에 의하면, 부산지방에는 休山驛(현재 동래역의 남쪽)과 蘇山驛(현재 금정구 선동)이 있었으며, 양산 黃山驛, 경주 仍浦驛, 기장 河月驛 등과 같이 黃山道의 속역이었다. 각 역에는 驛長과 驛吏, 驛卒 등이 있

11) 강대민, 1997; 『앞의 책』, 이원균, 2000; 『앞의 책』, 김석희·지두환, 1994; 『앞의 글』, 김강식, 2005 『앞의 글』

어 驛政의 처리와 공역을 담당하였다.

또한 院은 전국의 요로에 설치되어 공무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부산지방에는 溫井院(현재 온천동), 彦樹院(현재 청룡동), 沙川院(현재 좌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주요 통신시설로서 烽燧가 있었다. 이는 변경 지방에서 일어난 사변의 정황을 서울 또는 이웃의 군사 기지에 알려주기 위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대개 20~30리의 거리를 두고 멀리 바라보기에 적합한 산꼭대기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이웃의 봉수대에 연락하였다. 봉수는 상황에 따라 1炬에서 5炬까지를 들어서 전달하였다.

부산지방에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선전기까지는 荒嶺山(양정동 뒷산), 吾海也項(용당동 뒷산), 石城山(천마산), 鷹峰(다대포 두송산), 鷄鳴山(금정산 북봉), 干飛鳥山(장산 남봉)에 각각 봉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황령산, 석성산, 간비오산 봉수대는 이미 1461년(세종 7년)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이고, 계명산 봉수대는 1469년(예종 원년) 이전에, 오해야항 봉수대는 1481년(성종 12) 이전에, 응봉 봉수대는 1530년(중종 25) 이전에 각각 설치되었다. 각 봉수대에는 都別將 1명을 두고 그 아래 別將, 監考, 烽軍을 두었으며, 이들 봉수대는 관장하는 기관이 각기 달랐다.¹²⁾

12) 강대민, 앞의 책, 1997; 이원균, 앞의 책, 2000; 김석희·지두환, 앞의 글, 1994; 김강식, 앞의 글, 40~42쪽; 강인중, 「부산지방의 봉수대 연혁 및 위치고」, 『향토문화』 3, 1970.

Ⅲ. 조선전기 부산의 사회와 경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는 부산지역 지차체에서 편찬되고 있는 시사와 구지 등과 부산지역사 개설서 등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 부산지역의 인구와 산업, 농업생산과 토지소유구조, 전세 공물의 수취 실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김옥근 교수와 김석희·지두환 교수, 이종봉 교수의 연구가 있다.¹³⁾

1. 부산의 인구

조선전기 부산의 인구는 1425년(세종 7)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와 1432년(세종 14)에 작성된 『世宗實錄地理志』에 동래현과 그 속현인 동평현의 호구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동래현은 290호에 남자 1,151명, 여자 1,265명하여 합계 2,416명이고, 속현인 동평현은 108호에 남자 342명, 여자 285명하여 합계 627명이었다. 따라서 동래현의 총 호수는 398호에 3,043명의 인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보다 7년 뒤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지리지』의 것을 그대로 옮기고 있으나 인구는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록한 인구 통계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13) 金玉根, 앞의 글, 1989; 김석희·지두환, 앞의 글, 1994; 이종봉, 「朝鮮前期 釜山地域의 社會와 經濟」, 『항도부산』 21, 2005. 조선전기 사회와 경제 부분에 대한 서술은 이 글 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국역담당자인 양역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노비나 양반 등과 16세 이하 60세 이상의 인구는 제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인구를 다른 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호수는 전체의 1/3, 인구는 1/5 정도만 파악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당시 부산지방의 인구는 1,200호에 7,000명 정도로 생각된다.¹⁴⁾

한편 1740년(영조 16)에 편찬한 『東萊府誌』에 의하면 동래부는 5,641호에 인구는 19,099명으로, 1868년(고종 15)에 편찬된 『東萊府事例』에는 7,437호에 인구는 27,44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2. 부산의 농업생산과 稅役

조선전기에 부산지방의 산업은 농업이 주가 되고 있었다. 동래현과 그 속현인 동평현의 田結 수는 『世宗實錄地理志』에 墾田이 1,723결이라 되어 있다. 이는 당시 경상도 한 군현의 평균 전결 3,961결에 훨씬 미달하는 규모이다. 당시 동래현의 전결이 1,723결이고, 가호가 398호이므로 1호당 평균 경작규모는 전과 답을 합하여 4.3결 정도이다. 이것은 당시의 경상도 전체의 호당 평균 경지 7결과 8도 전체의 평균 경지 8.8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이다.¹⁶⁾ 이를 통해 동래현은 인구에 비해 토지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 농경지 1,723결 가운데 논과 밭의 비율은 논이 전체의 62.5%(1,076결

14) 김석희·지두환, 「앞의 글」, 609쪽. 이와 달리 이원균은 당시 인구를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이원균, 앞의 책, 91쪽)

15) 김옥근, 「앞의 글」, 50~51쪽.

16) 김옥근, 「앞의 글」, 47~48쪽.

8부8속), 밭은 37.5%(646결 1부3속)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404년(태종 4) 당시 전국의 총 전결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58.2%이고, 또한 같은 해의 경상도 총 전결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47%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래현은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관계로 호당 경작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산지방의 주요 수리시설로는 堤堰을 들 수 있다. 『慶尙道續撰地理志』(1469년, 예종 1)에 의하면, 동래현 관내에는 馬隋谷堤, 仇等竹里堤, 客達里堤, 竹山里綿紬洞堤, 禾池里堤, 釜古介堤 등 6개의 제언이 있었다. 이들 제언은 그 관개 면적이 최하 6결 74부(竹山里綿紬洞堤)에서 최고 26결 44부(仇等竹里堤)에 이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으로, 6개 제언의 총 관개 면적은 94결 32부였다. 이것은 논이 차지하는 총 면적 1,076결 88부의 겨우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982결 56부의 논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天水畝이었다.

그럼 조선초기 부산지역의 농업생산액을 추계해 보자. 이 시기 동래현의 총 경지 1,723결 중에 논이 1,068결이고 밭은 655결이다. 여기서 구래 잡탈지와 당년 재해지를 평균 30% 정도로 보면 논이 차지하는 실수확지는 747.6결이고, 밭은 458.5결이 된다. 당시 논 1결의 평균 수확고가 벼 25섬으로 추정되므로 논이 차지하는 총 수확고는 18,690섬이고, 밭 458.5결의 총 수확고는 5,731섬이 되므로 연간 총 생산량은 24,421섬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¹⁷⁾

당시 부산지역의 농업생산은 논과 밭에서 1년1작을 기본으

17) 김육근, 「앞의 글」, 55~56쪽.

로 하고 점차 1년2작이 확대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농업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사적소유가 널리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등호 이상의 상등호는 거의 없고 5등호인 잔잔호가 대다수였을 정도로 호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경영방식은 노비를 이용한 농장제와 병작경영이 널리 실시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차 병작경영이 강화되는 추세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⁸⁾

조선전기 과전법 아래의 수취체제의 기본형태는 租, 庸, 調의 三稅와 기타 雜稅를 들 수 있다. 동래현 농민들은 鮮初에는 답험손실법으로, 1444년(세종 26) 이후에는 貢法에 의한 田稅를 부담하였다.

1444년의 貢法 체제 하에서 볼 때 동래현의 田結은 水田이 2,203결이고 旱田이 1,033결로 도합 3,236결이었다. 여기서 官有地 114결을 제외하고 또 이 시기 陳災結을 약 20%를 추정하면 水田의 실결은 1,671결이 된다. 공법 하의 연평균 年分을 中下年 즉 5분실로 보면 1결 수세액이 쌀 10말이기에 수전의 총 세액은 쌀 1,114섬이며, 한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세액은 콩 688섬이 된다. 이러한 동래현의 田稅는 조선초기에는 상납미로 분류되어 漕船으로 京倉에 운반되었다. 하지만 1475년(성종 6)부터는 왜관에 사용되는 경비 등 倭料를 충당하기 위한 하납미로 설정되었다. 전세는 미와 곡물 외에 布 등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고, 농민들은 운송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전세 부담액은 국가 규정액보다 실제 과중하였다.

18) 이종봉, 「앞의 글」, 15~17쪽.

조선전기 貢賦는 전세공물[田貢]과 토산공물[土貢]을 중심으로 하는 貢物과 進上으로 나눌 수 있다.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당시 동래에 分定된 공물은 田貢에 속하는 면포, 저포, 꿀 등 8종목이 있고, 土貢에는 밤을 비롯한 일반재 25종과 生地黃을 비롯한 8종의 약재가 있었고, 동평현에는 꿀을 비롯한 22종의 財貨가 징수되었다. 특히 토산공물은 부산지역의 특산물로 미역을 비롯한 해산물이 주로 수취되었다. 이와 같은 공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수산물, 과일, 獸肉, 皮物, 약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래에 부과된 진상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다. 다만 후기 대동법 하에 경상도 左·右兵과 水營에 부과된 진상은 2,142섬 3말이었다. 진상 물자 구입을 위한 이 價米는 경상도 71개 州縣의 대동미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한 주현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평균 30섬이 된다. 그리고 대동법 하에 토산현물로 상납하는 이러한 外貢進上 이외에 京貢으로 作貢된 진상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규모로 추정하면 경상도 한 주현에서 부담하는 진상 액수는 평균 60섬이 된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 동래의 진상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양인이 부담하는 良役に 대해 살펴보자. 조선초기 동래현의 양역인구는 총3,043명으로, 이 중 남자가 1,493명이었다. 이 가운데 군정은 시위군[京軍] 11명, 진군[地方軍] 71명, 수군 130명 등 모두 212명이다. 그리고 시위군은 7番 1朔, 수군은 1삭 교대로 입역하는 正丁이고 이 밖에 正丁의 입역을 지원하는 奉足이 있었는데 시위군은 41명, 진군은 192명, 수군은 299명이 소속되었다. 따라서 당시 동래의 軍士 正丁과 그 奉足を 합한 軍丁의 총수는 正丁 212명, 봉족 532명으로

도합 744명이다. 동래의 男丁 1,493명 중 군역부담자의 비율이 약 50%가 되는데, 이는 당시 경상도 전체의 평균인 41%에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외에 徭役이 부과되었는데, 국가적 요역과 지방 관청의 잡역 등이 있었다. 부산지방의 농민들은 공물 및 전세의 수송뿐 아니라 제언의 수축, 부산진성·자성대 등을 비롯한 성곽의 축조와 수축 등 각종 역사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⁹⁾

3. 부산의 산업

조선시대 부산의 주요 산업은 물론 농업이었다. 조선초기 부산지역의 농경지는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1,723결인데, 이 중 관유지는 110결 정도이며 그 나머지 1,613결은 民田이었다. 민전 가운데 각종 공공기관(官衙, 鄕校 등)과 有役人(院主, 驛吏 등)에 지급한 各自收稅地 119결 50부와 寺田 50결을 제외한 1,363결 50부가 국가수세지인 민전이었다. 당시 생산되었던 농산물은 벼·보리·기장[黍]·조[粟]·콩·참깨[眞荳]·들깨·목화·닥나무·꿀·굴·석류·비자·대추·개암·생지황(生地黃)·작약·천문동(天門冬) 등으로, 곡물, 과일, 약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업 이외에 수산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수산업이 특히 발전하였다. 수산물 가운데 대구와 청어는 예부터 유명한 명산물이었다. 조선전기까지 부산지방의 어업경영형태는 半農半漁의 소규모 경영이 주류를 형성하고 소수의 전업적

19) 金玉根, 1989; 「앞의 글」, 김석희·지두환, 1994; 「앞의 글」, 이종봉, 2005; 「앞의 글」

경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래 경내에서 漁民貸與漁場, 官漁場 및 私漁場의 세 가지 형태의 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²⁰⁾

한편 부산지방의 수공업은 대체로 官營手工業, 民營手工業, 그리고 農村手工業의 3가지 형태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영수공업은 匠籍에 등록된 공장의 부역노동으로 군기를 비롯한 관부수요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經國大典』에 의하면 경상도 外工匠의 종류는 8도 외공장 27개 종류 가운데 19종이고 匠人數는 8도 외공장 3,764명의 30%에 상당하는 1,152명으로 가장 많다. 당시 동래에 소속된 외공장의 匠種과 匠人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래부지』(1740년, 영조 16)에 의하면 공장의 종류는 鑪器匠을 비롯한 23종에 127명의 장인이 있었다. 민영수공업은 전업적 독립수공업에 의해 영위된 것으로 조선전기까지는 그 비중이 미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민영수공업자들은 半工半農의 수공업과 농사를 겸업하는 자가 다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16세기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이문건의 『목재일기』에 보이는 경상도 星州 匠人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장인들 가운데 다수는 수공업 이외에 자기 소유 토지를 경작하거나 혹은 官屯畓이나 지주의 토지를 병작하고 있었다.²¹⁾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동래현 史川리에 수공업공장으로 陶器所, 救也리에 磁器所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래 지방에 자기, 도기, 가마니 등이 생산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기소와 자기소는

20) 19)와 같음.

21) 이정수, 『默齋日記』를 통해 본 지방 匠人들의 삶, 『지역과 역사』 18, 2006.

관영이 아니고 민영수공업장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 농민의 부업으로 영위되는 농촌수공업이 있었다. 조선전기 부산지방의 농촌수공업으로 생산된 주요제품은 면포·마포·견직물과 같은 직물과 신발·가마니·새끼 등의 藁工品, 목제기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까지는 수공업 총생산에서 농촌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관영수공업과 민영수공업의 생산액을 능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부산지방의 鹽業을 살펴보자. 소금은 곡물과 더불어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식료품으로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소금을 생산한 기록이 있다. 『경상도지리지』에 동래현에 貢鹽盆 23坐, 軍須鹽盆 2좌가 있고, 동평현에 공염분 30좌, 私鹽盆 2좌, 군수염분 8좌하여 모두 65좌의 염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전국 8도의 염분 1,362좌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당시 동평현에 鹽盆이 설치된 鹽所[제염지]가 非吾里, 老里 등 6개처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8도 전체의 염소는 265소가 있었다.

부산지방의 畜産業을 살펴보자. 조선시대에 牛는 주로 농경을 위한 役畜으로서 말[馬]은 전쟁, 교통, 운수, 貢馬(對明歲貢)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고 중요했다. 따라서 민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영목장을 설치하여 그 양육에 힘썼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의하면, 관영목장으로 당시 동래현에 牧馬 각각 232필, 793필을 기르는 石浦牧場과 吾海也牧場, 그리고 牧牛 276두를 기르는 絶影島牧場 등 3곳이 있었다. 특히 절영도 목장은 예부터 名馬의 생산지로 널리 알려졌다.²²⁾

22) 金玉根, 1989; 「앞의 글」, 김석희·지두환, 1994; 「앞의 글」, 이종봉, 「앞의 글」,

IV. 조선전기 부산의 대일관계

1. 삼포개항과 부산

조선시대에 들어와 부산은 외교, 국방, 무역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였다. 특히 선초부터 대일 교섭의 관문으로 이름을 높이다가 임진 난 이후 기유약조(1609년) 체결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개항장으로 대일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부산에 倭館이 처음 설치된 것은 1407년(태종 7)경으로 생각된다. 이때의 왜관은 지금의 子城臺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왜인들은 2천 명 정도가 지금의 범일동 일대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544년(중종 39) 蛇梁鎭倭變으로 일시 폐쇄되었던 부산포 왜관이 1547년(명종 2) 정미 약조에 의하여 다시 설치되었는데, 이때의 왜관은 자성대 부근의 구관이 아니고 水晶洞에 있었던 豆毛浦倭館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 이러한 사실은 선초부터 부산이 국가의 관문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

왜관의 설치를 비롯하여 태종대에는 왜인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펼쳤다. 이 당시 왜인은 恒居倭人, 向化倭人, 興利倭人, 受職倭人 등으로 불려졌다. 하지만 이들 왜인들의 행패가 점차 심해지자 세종 원년(1419)에는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었

2005.

23) 李鉉淙, 1956; 「李朝 倭館 略考」, 『成均』 7, 金容旭, 1962; 「釜山倭館考」, 『한일문화』 2-3, 李完永, 1963; 「東萊府 및 倭館의 行政小考」, 『항도부산』 2, 김의환, 1977; 「이조 시대의 부산왜관의 기원과 변천」, 『일본문화사연구』 2

고 이를 계기로 포구는 일시 폐쇄되었다. 그 후 일본의 계속된 요구에 의해 1423년(세종 5)에 부산포와 乃而浦[薺浦]를 개항하고 1426년에는 鹽浦를 개항함으로써 소위 三浦의 개항 시대를 맞게 된다. 삼포에는 왜관을 두어 교역을 하게 하되 물자공급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1443년(세종 25)에 대마도주와 계해조약이 체결되었다.²⁴⁾

이들 삼포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면포와 일본의 은, 남해산물 그리고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서적류 등을 교류하는 朝-中-日 동아시아 삼국무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부산포는 일본과 중국 무역의 중계지로 크게 이름을 날리게 된다. 또한 부산은 중개무역을 통한 막대한富力 바탕으로 都市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²⁵⁾

2. 삼포왜란과 부산

삼포개항 후 왜인들의 출입이 빈번해지고 또한 항거왜인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1436년(세종 18)에는 그 수를 장기거주자 60명으로 한정하고 그 외 초과 인원을 송환키로 하

24) 李鉉淙, 1964; 『李朝前期 對日交涉史研究』, 한국연구원, 金柄夏, 1969; 『李朝前期 對日貿易研究』, 한국연구원, 한일관계사학회, 2006; 『통신사 李藝와 한일관계』, 새로운 사람들

25) 이현중, 1964; 『앞의 책』, 1969; 김병하, 『앞의 책』
대체로 기존 연구 성과에서는 조선전기의 대일관계의 평가에 있어 일본 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데 그쳤을 뿐이고, 조선 정부는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이며 비능동적인 외교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국력소모가 컸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5세기 말부터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음으로 인해 국내 유통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측면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정수, 1998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부대사학』 22)

였지만 그것은 잘 실현되지 않았고, 그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당시 기록을 통해 부산포의 항거왜인의 수를 보면, 1440년(세종 22)에 60여 호라고 하고 있으며, 1466년(세조 12)에는 330명(110호), 1470년(성종 원년)에는 350명(88호), 1494년(성종 25)에는 383명(74호)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제포와 염포의 경우도 부산포와 거의 마찬가지였다. 이들 항거왜는倭里 근처의 토지를 임의 경작하는 농업과 어업 및 상업으로 생활을 영위했으며,²⁶⁾ 또한 밀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일본 선박의 회수나 인원, 무역품의 종류나 무역 액수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행하게 된다.

이에 불만을 품고 1510년(중종 5) 쓰시마 도주의 원조를 얻은 왜인 4천5백여 명이 작당하여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다. 난 후에 즉시 삼포는 폐지되었으나, 대마도주의 끈질긴 간청으로 인해 다시 1512년(중종 7) 壬申約條를 맺고, 계해조약에 규정된 船數와 米穀量을 반으로 감하기로 하고 교역을 허락하여 제포만 개항하였다. 그 후 1544년(중종 39) 왜관을 부산포로 옮긴 직후 재차 일본 해적선 20여척이 沙梁鎮에 침입하여 난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다시 국교를 단절하고 포구를 폐쇄하였다.²⁷⁾

하지만 대마도주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1547년(명종 2)에 丁未約條를 체결하여 다시 한번 통교를 허락하되 임신약조를

26) 田代和生 지음, 2005; 鄭成一 옮김, 『왜관』, 논형

27) 中村榮孝, 1964; 「三浦における倭人の争亂」, 『日鮮關係使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村井章介, 1990; 「15,16世紀の地域間交流と三浦の亂」, 『歴史科學』 122(大阪歴史科學協議會), 村井章介, 1995; 「三浦の亂時のソウル倭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보다 더 구체화하였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부산포가 조선 유일의 개항장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때 浦所를 부산포 1항으로 제한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제포는 바다 가운데 섬이 많아 왜인이 朝貢을 빙자하여 諸島에 몰래 정박하여 침략하는 폐단이 많은데 반해 부산포는 왜선이 숨을 만한 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후 또 다시 1555년(명종 10)에 을묘왜변이 발생하자, 조선과 일본 사이는 정식 교섭이 단절된 채 대마도를 중심한 왜의 私送만 계속되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²⁸⁾

3. 대일무역과 부산

朝日간의 무역은 처음에는 정치·외교적인 목적이 중심이 다가 점차 경제적인 교류로 확대되었다. 조선 정부는 정치·외교적으로는 무역 왜인의 계층을 將軍使, 諸巨僑使, 僑使 등으로 나누어 접대에 있어 차별을 두었으며, 경제적으로는 倭寇와 밀접했던 九州나 對馬島 특히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 각지의 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 통제했다.

당시 조일무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성립되었는데, 첫째 倭使가 휴대한 공식 貢物에 대한 조선 정부의 답사, 둘째 倭使가 가져온 공물 외에 부수된 상품에 대한 서울 동평관 등에서 교역, 셋째 倭使에 부수한 商人團이 三浦나 上京路 중에 행하는 교역 등이었다. 이러한 15·16세기의 조일무역은 그

28) 李鉉淙, 1959; 「앞의 글」, 金容旭, 1962; 「앞의 글」, 李完永, 1963; 「앞의 글」, 김의환, 앞의 글, 1977; 이재범, 1996; 「삼포왜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집

교역 품목과 수량의 변화라든지 공·사 무역이나 대내외 정세의 동향 등과 같은 양과 질적인 전개 과정상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²⁹⁾ 제1기(1392~1469년)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은 蘇木, 胡椒, 香類 등 남해산 물품이 중심이었고, 조선의 答賜品은 綿紬와 麻布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조일무역은 정치·의례적인 관계가 중심을 이루었기에, 그것이 국내경제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제2기(1470~1520년)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광산물(銅鐵, 硫黃 등)과 남해산 물품이었고, 조선의 答賜品은 주로 綿布로 이루어졌다. 특히 16세기 초에 와서 조선내의 鍊銀術의 개발로 인해 端川 등 광산 개발이 적극화되어 鑛銀 생산이 늘고, 그것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출됨에 따라 紗羅綾緞 등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일무역은 소강과 갈등의 양상을 노정시켰다. 제3기(1521~1567년)는 수입품은 銅, 銀 등의 광산물과 기존의 남해산 물품이 중심이었고, 答賜品은 綿布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일본 내의 광산개발 붐으로 인해 다량의 銀이 생산되면서 이전과 달리 막대한 양의 倭銀이 유입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三國이 銀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朝·中·日 삼국은 통일적 銀 決濟圈의 형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16세기 중엽경부터 동아시아 무역로의 변화와 국내 銀價의 급락에 따라 조선을 중개로 하던 기존의 日-中 관계가 倭商과 中國海商에 의한 직접무역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에 朝鮮과 對馬와의 무역루트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국내경제도 침체 현상을 나타내었다.³⁰⁾

29) 이정수, 1998; 「앞의 글」

30) 이정수, 앞의 글, 1998; 韓相權, 「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전개 - 銀貿易을 중심으로」,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李泰鎮, 「16세기 東아시아 경

그럼 조선전기의 대일무역 규모를 파악해 보자. 이를 통해 대일무역이 부산에 끼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삼포왜란 전과 그 이후의 양상을 간략히 보기 위해, 1475년(성종 6)과 1476년 두 해의 公貿易品에 대한 價布(代價) 지급 통계를 보자. 1475년에 京中에서 왜인에게 지급한 貿易 價布가 9,827필이고, 경상도 포소에서 지급한 것이 17,381필로 합계 27,208필이었다. 그리고 1476년에 京中에서 21,558필, 경상도 포소에서 지급한 價布가 15,833필로 합계 64,629필이었다. 이 공무역 외에 私貿易, 進上 回賜, 求請을 포함할 경우 이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거래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15세기 말경에는 대일 무역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기에 매년 10만 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경상도 포소에서 지급한 액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막대한 貿易價뿐 아니라 渡來倭人에게 소비하는 접대비도 거액에 달하였다. 포소와 서울 간 왕복 도중의 잡비, 음식물, 연회비를 제외하고 연간 5~6천명에 달하는 왜인들의 過海·체류기간의 양료만 하더라도 당시 12,000섬에 달하였다. 도래 왜인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성종 21년(1490), 22년, 23년의 3년 동안에 삼포에서 지급한 倭料가 4만 5백여 섬으로 연간 1만 5천여 섬에 달하였다. 당시 貢案에 책정된 경상도 倭料가 연간 1만 5천여 섬인데, 1508년(중종 3)의 왜료

제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朝鮮儒敎社會史論』, 1989; 李泰鎭,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 상업의 성쇠」, 『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1998; 田中健夫, 「倭寇の變質と日鮮貿易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出版會, 1959.

지급량이 2만 2천여 섬으로 7천여 섬을 초과하여 이를 未收田稅로 가까스로 보충하였다.³¹⁾ 이처럼 동래현의 田稅는 1475년(성종 6)부터는 왜관에 사용되는 경비 등 倭料를 충당하기 위한 하납미로 설정되어, 대일 관계용으로 모두 지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일무역의 양상은 1540년(중종 35) 전후에 倭銀이 대량 유입되면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기존의 교역품이 綿布 對 銅鐵 중심에서 綿布 對 銀으로 바뀌었으며, 그 교역량도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당시 倭銀의 유입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542년(중종 37)에 일본 국왕사 安心東堂이 한 번에 가져온 銀만도 8만 냥에 이르렀고 그 외 硫黃도 20만근을 가져왔는데, 그 가격이 거의 官木 45만필에 해당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安心東堂이 공무역한 수량은 전체의 1/7 정도인 면포 6만필이었는데, 그 외의 商物은 대개 사무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무렵 倭商들이 공무역에 의하여 1년간에 얻는 綿布만도 선박으로 60~70隻分이나 되었는데, 사무역한 수량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할 때 무역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²⁾ 이러한 公私 무역 외에 밀무역도 성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³³⁾ 이처럼 삼포왜란 후에는 대일무역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부

31) 이현중, 『앞의 책』, 213쪽.

32) 이정수, 앞의 글, 1998.

33) 당시 밀무역이 성행하였음은 다음의 실록 기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1514년(중종 9) 11월에 삼포 가까이의 가덕도에서 상인들이 왜인과 銅鐵을 많이 밀무역하여 이전처럼 市肆에 동철이 많아졌다는 내용이나, 1539년(중종 34) 8월에 유서종이란 자가 김해 낙동강 가의 蒜山이란 곳에 정자를 지어놓고 서울상인들의 물건과 재화를 쌓아두었다가 서울에서 조사 온 경차관에게 발각된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中宗實錄』 권21, 중종 9년 11월 무인, 『中宗實錄』 권91, 중종 34년 8월 갑술)

산에 끼친 영향이 그 이전보다 더욱 지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대일교류의 확대에 의해 부산에 사회·문화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1509년(중종 4)에 제포 북쪽의 報平驛이 혁파되는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곳의 人民과 驛吏들은 왜인과 결혼하여, 收養이라고 칭하여 서로 왕래하면서 아비라 부르고 형이라 일컬으며, 상인으로 장사하는 자나 여기에 와서 물건을 파는 왜인들이 모두 驛人에 의지하였다는 것이다.³⁴⁾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삼포 왜인들이 조선 여인들과 혼인하거나 정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 다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곳이 밀무역의 근원이 되고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특별히 報平驛을 혁파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⁵⁾

V. 임진왜란·정유재란과 부산

1. 양난과 부산의 사정³⁶⁾

34) 『中宗實錄』 권8, 중종 4년 4월 계해.

35) 제임스 루이스, 「釜山倭館을 중심으로 한 朝·日交流 -交奸事件에서 나타난 勸力·文化의 葛藤」, 『정신문화연구』 20-1(통권 66호), 1977, 178-179쪽.

36) 丁仲煥, 「日本記錄에서 본 壬辰亂 -부산관계 사료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 1963; 丁仲煥, 「壬辰倭亂과 釜山事蹟」, 『항도문화』 3, 1970; 정중환, 「임진왜란시의 부산지구전투」, 『군사』 2, 1981; 金錫禧, 「조선전기의 부산」, 『釜山市誌』 上, 1974; 金錫禧, 「壬辰倭亂과 釜山抗戰」, 『항도부산』 9, 1992; 崔海君, 「임진왜란 관련 선열과 유적」, 『항도부산』 9, 1992.

양난과 부산의 항전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정중환 교수와 김석희 교수의 연구가 상세하다. 이 부분의 통사나 개설류의 일반 서술은 대체로

일본은 오오닝[應仁]의 난(1467~1477) 이래 거의 100년에 걸친 戰國時代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전국을 통일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도요토미는 자신에게 위협적인 제후들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에 방출시킴으로써 국내의 통일과 안전을 도모하고 오랫동안 단절되고 있던 명과 조선과의 대외무역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 등 여러 목적을 갖고 무모한 침략을 감행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 4월 13일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등이 인솔한 일본의 조선 원정군 제1진 18,700여 명이 700여 척의 병선에 나누어 타고 부산 앞 바다에 밀어닥침으로써 시작되었다. 부산성을 지키고 있던 부산 첨사 鄭撥과 다대포 첨사 尹興信, 그리고 동래부사 宋象賢이 군민들과 더불어 조수처럼 밀려오는 적을 맞아 최후의 순간까지 용감하게 맞섰으나 중과부적으로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부산지방은 임진왜란의 7년 전 기간에 걸쳐 시종 일관 일본군의 점령 아래 있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 지방보다도 전란의 피해가 극심했고 戰禍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많은 인명과 재산, 그리고 각종 시설과 문화재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예컨대 부산첨사영과 경상좌수영을 비롯한 병영의 건물, 동래부의 동헌·객사 등 대부분의 솜·창고, 민가의 각종 건물들이 소실·파괴되었다. 또한 범어사를 비롯한 금정산·황령산 등의 古刹이 방화·약탈되어 다수의 소중한 문화재가 없어졌다. 특히, 많은 남녀들이 사망하거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민중들은 일본군에 의하여 무자비할 정도의 혹사를 당하였다. 동구 좌천동 뒷산에 있는

이들 연구의 내용을 다수 참고하고 있다.

부산왜성과 범일동에 있는 그 支城(子城臺城), 그리고 구포에 있는 甘同浦城과 동래의 甌山城 등은 이때 일본군들이 부산 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쌓은 것들이다.

2. 임진왜란과 부산의 항전

(1) 부산진성과 동래성의 항전

1592년(선조 25) 4월 14일 왜군 1만 8천여 명은 700여 척의 병선에 나누어 타고 부산포에 상륙하여 부산진성을 공격하였다. 부산첨사 정발³⁷⁾을 비롯한 소수의 軍民들은 죽음으로써 항전하였으나 무기와 군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성은 함락되었다. 적군은 14일 부산진성을 함락한 즉시 동래성에 접근하여 길을 비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송상현 부사를 비롯한 軍民 모두가 항전의 의지를 보이자 적은 15일 아침 대공세를 감행하였다. 송상현 부사는 성중을 돌면서 독전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성은 함락되고 부사를 비롯한 다수의 軍民들은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 때 순국한 정발 장군은 1761년(영조 37)에 戰亡碑가 세워졌고, 1766년에는 鄭公壇이 마련되어 모셔졌다. 그리고 송상현 부사는 충렬사와 송공단에 모셔졌고, 양산군수 조영규, 동래부의 教授 盧蓋邦 등은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또한 동래성이 함락된 후 최후까지 적에게 굴하지 않고 倡義募兵하여 끝까지 왜적과 싸운 金廷瑞, 鄭承憲 등 24別典功臣도 있다.

37) 당시 정발의 행동에 대해서는 3가지의 설이 있다. 그 당일 절영도에 사냥 갔다가 적선이 당도함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성내로 들어갔다는 설, 일단 바다에 내려가 且戰且退하였다는 설, 또 처음부터 籠城作戰을 벌였다는 설이 있다.(김석희, 1992, 「앞의 글」, 49쪽)

(2) 다대포성과 수영성의 항전

적군이 부산진성을 함락하고 서평포진과 다대포진을 공격하였다고 하는데, 서평포진에 관한 자료는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고 다대포 전적도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약간의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14일 부산진성이 함락된 후 일부의 적군 병력은 동래로 향하고 일부는 다대포를 포위했으나 오히려 격퇴 당했다. 하지만 15일 동래성과 함께 다대포성도 적의 대군의 공격을 받아 첨사 尹興信이 군민과 더불어 항전했지만 성의 함락과 더불어 순사하였다. 또한 좌수영의 항전에 대한 전적도 상세히 전하는 바가 없다. 다만 1793년(정조 17) 수군절도사 張寅植이 지은 『水營義勇碑銘』에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수사 朴泓이 부산에 침입한 적세가 더욱 창궐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진영을 버리고 도망해 버리자 군사는 동요되고 적군은 쉽게 좌수영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이곳 군민들이 향토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군을 조직하여 7년간 적과 투쟁하였다. 지금 수영동 義勇壇에는 그 때 뛰어난 활약을 했던 金玉戒를 비롯한 25義士의 비가 있다.

(3) 부산포 해전

육지에서의 전투는 우리 군의 참패로 끝났으나 해전에서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휘하의 수군과 전라우도·경상우도의 수군으로써 연합함대를 조직하고 왜군을 격파하여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순신은 적의 수군이 부산포 방면에 집거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전선 74척과 挾船 92척으로 8월 1일 여수를 출발하여 9월 1일 전라 우수사 李億祺, 경상 우수사

元均과 더불어 작전을 개시함으로써 부산포 해전이 전개된다.

부산포 해전에서 우리 수군은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전과는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고 다수의 적병을 사살하였으며 또한 다량의 군량과 의복·무기 등을 노획할 정도로 막대하였다. 이 해전에서 우리 수군은 비록 일본 수군을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의 기세를 크게 꺾었으며, 적의 보급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그들의 작전 계획에 큰 차질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처럼 부산은 왜군의 침략을 막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왜란 7년 동안 사실상 왜군의 지배 하에서 수령도 행정도 없는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부산은 왜란을 당하자 軍·官·民이 합심하여 국가를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이후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에 큰 자극제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VI. 맺 음 말

이상에서 부산지역의 조선전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행정과 관방, 사회와 경제, 대일관계, 임진·정유재란과 부산 등 크게 네 측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다만 필자의 역량 부족과 연구 성과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시기 부산지역의 문화와 인물, 교육, 종교, 민간신앙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조속히 정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된다.

실제 해당 시기의 부산지역사에 대한 연구는 지자체의 市史·區誌나 개설서, 논문 등을 통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약간의 논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조선전기의 부산지역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당시의 관찬사서인 조선왕조실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실록에서도 부산지역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료적 한계가 더 많은 고려시기에 비해 조선전기의 연구 성과가 적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적 문제로만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해당 시기를 전공하는 연구자 수의 부족과 연구자의 관심의 결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최근 중앙사 차원에서는 조선전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과 자료 발굴 등을 통해 연구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부산지역사의 연구는 별 진전 없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부산지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선 고문서 등 각종 자료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청되며, 연구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좀 더 나은 연구 방법론의 적극적인 모색과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될 때 지역사 연구의 진전과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1989, 1990, 1991, 1992.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2001.
- 부경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선인, 2003.
- 채상식, 『내고장의미찾기 -부산·경남편-』, 한국이동통신, 1995.
- 부경역사연구소, 『부산, 역사향기를 찾아서』, 부산은행, 2005.
-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 총서 1 -부산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신라대 출판부, 2003.
- 李鉉淙, 『李朝前期 對日交涉史研究』, 한국연구원, 1964.
- 金柄夏, 『李朝前期 對日貿易研究』, 한국연구원, 1969.
- 강대민, 『부산역사의 산책』, 한국학연구소, 경성대 출판부 1997.
- 崔海君, 『부산의 맥』 상·하, 지평, 1990.
- 崔海君,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 1·2·3, 지평, 1997.
- 이원균, 『부산의 역사』, 늘함께, 2000.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和 政治』, 한국연구원, 1983.
- 육군본부,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1968.
- 田代和生 지음, 鄭成一 옮김, 『왜관』, 논형, 2005.
- 한일관계사학회, 『통신사 李藝와 한일관계』, 새로운 사람들, 2006.
-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의식』, 혜안, 2006.
- 강대민, 박선애, 「부산사의 연구기관과 연구현황」, 『문화전통 논집』 2(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4.
- 강인중, 「부산지방의 봉수대 연혁 및 위치고」, 『향토문화』 3, 1970.
-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향도부산』 20, 2004.
- 김강식, 「朝鮮前期 釜山地域의 地方行政과 關防」, 『향도부산』

21, 2005.

김동철, 「17·18세기 對日貿易에서의 公作米 問題」, 『항도부산』 10, 1993.

김동철, 「조선후기 국방·외교·무역의 중심지 부산」, 『부산의 역사와 문화』(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대 출판부, 1998.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의 역할」, 『통신사 한·일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2003.

金錫禧, 「조선전기의 부산」, 『釜山市誌』 上, 1974.

金錫禧, 「壬辰倭亂과 釜山抗戰」, 『항도부산』 9, 1992.

김석희·지두환, 「조선전기의 부산」, 『釜山市史』 제1권, 부산시 사편찬위원회, 1994.

金玉根, 「朝鮮前期의 釜山經濟」, 『釜山經濟史』, 부산상공회의소, 1989.

金龍基, 「李朝 成宗代의 倭物庫에 대하여」, 『논문집』 5, 부산대, 1964.

金容旭, 「釜山倭館考」, 『한일문화』 2-3, 1962.

김의환, 「이조시대의 부산왜관의 기원과 변천」, 『일본문화사 연구』 2, 1977.

김의환, 「부산 단일 왜관 성립의 연구 -17·18세기의 대일관계 究明을 위하여-」, 『봉산고승제박사교회기념논총』, 1989.

백옥경, 「조선 전기의 사행 밀무역 연구 -부경사행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5(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6.

윤용출 외, 「전근대 부산·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회보』 창간호, 1994.

윤용출, 「조선후기 機張縣의 三政 운영」,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이수건, 『韓國史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李完永, 「東萊府 및 倭館의 行政小考」, 『항도부산』 2, 1963.
- 이재범, 「삼포왜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 연구』 6집, 1996.
- 이정수,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부대사학』 22, 1998.
- 이정수, 「『默齋日記』를 통해 본 지방 匠人들의 삶」, 『지역과 역사』 18, 2006.
- 이종봉, 「조선시대의 기장」, 『기장군지』 上,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 이종봉, 「朝鮮前期 釜山地域의 社會와 經濟」, 『항도부산』 21, 2005.
- 李泰鎭, 「16세기 東아시아 경제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朝鮮儒敎社會史論』, 1989.
- 李泰鎭,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 상업의 성쇠」, 『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1998.
- 李鉉淙, 「李朝 倭館 略考」, 『成均』 7, 1956.
- 이현중, 「기유약조 성립 시말과 세견선수에 대하여」, 『항도부산』 4, 1964.
- 鄭貳根, 「17·18세기 釜山地域(동래부)의 재정」, 『항도부산』 10, 1993.
- 정재훈, 「조선전기의 동래」, 『동래구지』 上, 동래구지편찬위원회, 1995.
- 丁仲煥, 「日本記錄에서 본 壬辰亂 -부산관계 사료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 1963.
- 丁仲煥, 「壬辰倭亂과 釜山事蹟」, 『향토문화』 3, 1970.
- 정중환, 「임진왜란시의 부산지구전투」, 『군사』 2, 1981.
- 崔海君, 「임진왜란 관련 선열과 유적」, 『항도부산』 9, 1992.
- 韓相權, 「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전개 -銀貿易을 중심으로」,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홍연진, 「부산의 지방사 연구 현황」, 『항도부산』 8, 1991.

홍연진, 「부산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10, 1993.

제임스 루이스, 「釜山倭館을 중심으로 한 朝·日交流 -交奸事件에서 나타난 勸力·文化의 葛藤」, 『정신문화연구』 20-1(통권 66호), 1977.

田中健夫, 「倭寇の變質と日鮮貿易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出版會, 1959.

中村榮孝, 「三浦における倭人の争亂」,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1964.

村井章介, 「15, 16世紀の地域間交流と三浦の亂」, 『歴史科學』 122(大阪歴史科學協議會), 1990.

村井章介, 「三浦の亂時のソウル倭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